

■ 광주 온 전병성 기상청장 인터뷰

“날씨 예보 넘어 국민과 소통
나로호 발사 때 예보관 파견”

“단순히 예보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기상청이 되어야 합니다.”

11일 광주시 서구 한 호텔에서 열린 ‘날씨 공감 포럼’에 참석한 전병성 기상청장(사진)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날 포럼의 취지를 이끌어 설명하고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국민과 접촉면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패션·디자인·건강·레저·조류·관광 등 기상 관련 주제로 광주를 비롯한 5개 지방기상청에서 ‘날씨공감 포럼’을 열고 있다

올해부터 중단된 장마예보에 대해 전 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장마철에 집중됐던 강수량이 장마 전·후에도 크게 증가하면서 여름철 강수량이 변화됐다”며 “장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자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선을 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



나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학계와 기상청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려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올해 말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조립을 마치고 테스트단계인 위성은 30분 간격으로 수신하는 일본 기상위성의 절반인 15분 간격으로 아시아지역 위성영상이 제공돼 보다 신속·정확한 예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나로호(KS-LV-1)’와 관련 전 청장은 “성공적인 로켓 발사가 되도록 지역 예보관 2명을 발사 4일 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1~25t 화물차 1,200대 운행 중단... 장기화 땀 물류대란

화물연대와 대한통운간 막판 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1일 예정대로 총파업(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광주 기아자동차와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지역 경제는 화물연대의 파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총파업 돌입=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자정부터 예정대로 전면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소유 1~25t 화물차 1천 200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30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아[C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서 집회를 연 뒤 광산구 하남산단 4번 도로 인근 대운동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히 아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비롯한 비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고(故) 박종태 열사 명예회복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보장 ▲대한통운 계약해지자 복직 등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했다.

대한통운 측은 “그동안 정규직 채용 제한 등 개인택배사업자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화물연대는 우리가 풀수 없는 화물연대 실제 인정 등 정치적 문제가 확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측과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며 “교섭단은 철수했으며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물류대란 우려=화물연대 광주와 전남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2천700명이다. 사·도지역



11일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길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00명이 ‘특수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을 차고지로 등록된 1~25t 화물차는 3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등록화물차량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총파업 첫날인 이날 광주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화물이 오가고 있다. 대한통운에 위탁 운송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물류차질 우려가 높았지만 11일 타이어 출하량이 11트럭 160대 분량인 목표 물량의 91%에 달해 물류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그물 물류를 맡고 있는 글로벌을 통해 소하리공장의 수송 차량을 동원해 평소 1일 운송물량인 자동차 1천500대의 90% 이상

을 무난히 소화했다. 삼성광주전자도 비조합원과 대체차량을 동원해 운송물량을 처리했다.

그러나 지역 경제는 파업 추이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조합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송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도 대책=광주시는 총파업 돌입과 함께 각 자치구에서 8t 이상 일반 화물차 618대에 유상운송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대비,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사업장 동향 파악은 물론 비조합원 차량 조회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중형기자 gi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7분 해질 19시 47분 달돋이 22시 59분 달질 08시 56분

구름 사이로 햇살 가금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Map showing weather conditions across Korea.

Table with 5 columns: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Rows for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columns for days of the week and weather icons.

순천 모 교회 목사 공금 횡령 논란

수천만원 빼돌렸다 신자들 반발 불러

순천지역 모 교회 목사가 교회 재단의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뒤 신자들의 반발이 일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순천시 동의동 D교회에 따르면 A(58) 목사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이 교회 장로회 측에 3천500만원이 입금된 본인 통장을 전달했다.

A 목사는 최근 이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재단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날 “그동안 내가 쓴 돈”이라며 장로회 측에 통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신자들은 이날 A 목

사가 돌려준 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 교회 신자들은 A 목사가 지난 2005~2006년 교회 재단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당시 잉여금 3천만원과 보조금 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도들은 A 목사가 지난 2월께 어린이집 차량 구입대금 1천500만원을 빼돌렸으며, 지난 2005년에는 신앙교사 채용과정에 개입, 교사 퇴직금 300만원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일부 신자들이 주장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모두 교회 내부의 특수한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의혹들을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광주 중·고교 70%

휴대전화 소지 허용

광주지역 중·고교 10곳 가운데 7곳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관내 중·고교 149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59곳(70.2%), 고등학교

는 45곳(69.2%)이 허용했다.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한 학교는 중학교는 25곳, 고등학교는 20곳 등 모두 45곳이었다.

교내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는 중학교는 3곳, 고등학교는 일반계 6곳, 전 문제 5곳 등 11곳으로 모두 14곳(9.4%)이었으며 134곳은 허락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학교 내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중학교 56곳, 고등학교 34곳 등 90곳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

Large banner advertisement for travel agencies including '광주여행', '제주 여행', and '제주 열망투어'.

Advertisement for IPALC Hybrid and water treatment services,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chnical diagrams.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featuring a '6월 5일 OPEN' banner and a building image.